

現行原價會計의 概念構造와 評價

이 정 록*

Conceptual Framework and Evaluation of Current Cost Accounting

Jeong-Rok Lee*

요 약

현행원가회계시스템의 핵심개념인 경영이익개념은 현행영업이익과 보유이득으로 구성된다. 보유이득의 성격에 대해서는 자본수정설과 이익설의 두가지 견해가 있다. 전자의 근거는 조업능력유지개념인 반면, 후자의 근거는 재무자본유지개념이다.

현행원가회계 주장자들은 그것이 전통회계보다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재무자본지지자들은 현행원가정보가 경영자들의 과거의사결정의 평가에 필요하고, 따라서 그들의 의사결정능력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 실물자본지지자들은 기업을 지속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기업의 조업능력이 유지되었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역사적원가회계 지지자들은 현행원가회계가 자산을 판매하기 전에 자산가치의 증가를 인식함으로써 전통적인 수익인식원칙을 위반하고, 회계과정에 지나치게 주관성이 개입되어 있다고 믿는다.

Abstract

Current cost income is composed of current operating profit and holding gains. There is two viewpoints about the nature of current cost changes: earnings and capital adjustments. The former is based on the financial capital maintenance concept, while the latter is based on the physical capital maintenance concept.

Proponents of current cost accounting are convinced that it provides more useful information than conventional accounting. Advocates of financial capital believe that current cost information is needed for management to evaluate their past decisions, and thereby be able to improve their decision-making ability. Defenders of historical cost point out that current cost accounting violates the traditional revenue recognition principle by recognising increases in the value of assets before sales.

* 양산대학 사무자동화과 조교수

논문접수 : 98.6.15 심사완료 : 98.7.27

I. 序 論

재화와 용역의 가격변동은 역사적원가기준을 신봉하는 회계실무자들은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이익측정이 회계의 기본과제로 등장한 이래로 회계실무에서 역사적원가가 측정의 검증가능성이란 장점으로 인해 자산평가기준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재화와 용역의 가격변동은 역사적원가정보로 하여금 경제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예측가치와 피드백(feedback)가치를 상실하게 함으로 인해 역사적원가가 더 이상 목적적합한 평가기준으로 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역사적원가에 대한 대안으로 개발된 것이 현행가치회계로서, 이 중 대표적인 것이 현행원가회계이다.

현행원가회계는 Edwards·Bell(이하, E·B)이 1961년 최초로 제안한 이래¹⁾ 후속적인 현행가치회계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규범적 회계이론의 수립에 큰 기여를 하고, 동시에 현행회계실무의 개선에 기여를 하였다.²⁾ E·B의 현행원가회계와 Chambers와 Sterling이 제안한 현행가치회계³⁾는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10여년 동안 회계학연구의 주류를 형성했던 이익측정이론의 모태가 된 주요한 연구성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규범적 회계이론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현행원가회계의 개념구조를 E·B의 이론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 아울러 이 시스템의 주장근거 및 장단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현행원가회계의 理論的 基礎

E·B는 현행원가정보의 유용성은 경영자와 기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질과 관련을 가진다고 하였다. 기업경영자는 기본적으로 이익극대화를 위하여 기업자원을 최적 배분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기업자원의 최적 배분을 위해서 경영자는 몇가지 주요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유형에는 특정시점에서 기업이 보유해야 할 자산의 규모와 관련된 기업확장문제(expansion problem), 보유할 자산의 형태와 관련된 자산구성문제(composition problem), 자산의 구입자금 조달방법과 관련을 가진 자금조달문제(financing problem)의 세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3가지 유형의 경영의사결정은 공통적으로 미래사건에 관한 기대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기대는 과거활동에 근거를 둔다. 따라서 비교적 정확한 기대를 수반하는 양호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과거활동, 즉 과거의사결정을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회계정보가 필요하다.

회계의 한가지 목적은 과거의사결정을 평가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한 회계자료의 유용성은 특정기간에 대하여 과거에 예상되었던 기대치에 대한 실제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에 달려 있다. 회계자료는 경영자의 기대오류를 밝혀주어야 하며, 이 기대오류는 사건이나 미래기대치를 수정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회계정보가 유용성을 가지려면 가능한 한 특정기간의 실제사건을 측정해야 한다.

1. E. O. Edwards & P. W. Bell, *The Theory and Measurement of Business Incom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1).
2. 미국의 회계기준(GAAP)상 재고자산의 저가기준 평가에 적용되는 시가개념이 바로 현행원가이며,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회계기준에서 채택하고 있는 공정가치(fair value)개념도 현행원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3. Raymond Chambers, *Accounting, Evaluation and Economic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6); Robert Sterling, *Theory of Measurement of Enterprise Income* (Kansas: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70).

2.1 경영이익의 개념과 구성

E·B의 경영이익(business income)개념은 현행영업이익(current operating profit: COP)과 실현가능원가절약(realizable cost savings: RCS)으로 구성되어 있다. COP는 판매된 제품의 현행가치(current value)에서 관련원가요소의 현행원가를 차감한 잔액이다. 실현가능원가절약은 기업보유자산의 당기현행원가증가액이다. E·B의 경영이익은 실질자본이 유

지되도록 계산되어야 하므로 일반물가수준의 변동으로 인한 허구적 요소가 제거되어야 한다. 실현가능원가절약은 보유이득(holding gains: HG)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이 보유이득은 실현된 것일 수도 있고 미실현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E·B의 경영이익은 현행영업이익과 실현보유이득 및 미실현 보유이득의 합이다.

2.2 보유이득의 개념과 성격

2.2.1 개념

기업활동에는 영업활동과 보유활동이 있다. 전통 회계에서는 자산이 처분될 때만 이득이 기록되므로 경영자의 보유활동이 성공적인지 여부를 사실상 파악할 수 없으며, 기업간을 비교할 때도 각 기업의 경영효율을 평가할 수가 없다. 경영자의 성과평가에서는 영업손익과 보유손익을 구분표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기업의 경우 보유활동, 즉 가격이 상승할 때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기회는 영업활동, 즉 제품의 생산 및 판매과정에서 재화와 용역을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기회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현행영업이익과 보유손익의 분리는 일부 학자들에 의해 의미있는 것으로 수용되지는 않는다. Prakash·Sunder 및 Drake·Bopuch는 보유이득과 현행영업이익이 상호간 독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경영자에 의한 일부의사결정이 양요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⁴⁾ 예를 들어, 특정자산이 미래영업비용을 감소시키시 위해 취득되었다면 그것으로부터 나타나는 효익은 보유기간중의 당해자산의 현행원가변동보다는 미래영업이익에 반영될 것이다. 이때 만일 자산의 현행원가가 감소함으로써 보유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영업비용감소 때문에 생

긴 영업이익의 증가가 그 보유손실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라면 그 보유손실의 발생을 근거로 경영자를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COP와 HG의 비분리주장이 과거의사결정의 평가목적이라면 적합할 수 있으나 미래사건이나 기대치의 예측목적이라면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2.2 성격

보유이득의 성격에 대해서는 자본수정(capital adjustment)설과 이익(earnings)설의 두가지 견해가 있다.⁵⁾ 현행원가변동액을 이익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이익설과 이익의 일부로 될 수 없는 자본수정으로 간주하는 자본수정설로 나누어져 있다.⁶⁾ 자본수정설의 근거는 실물자본유지개념이다. 실물자본유지개념에 따르면 이익은 기초실물자본을 유지하면서 분배할 수 있는 최대금액이다. 따라서 대체원이 변동액과 동액의 자금은 미래에 자산을 대체할 수 있는 실체의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고서는 배당으로 분배가 불가능하므로 동일 또는 유사자산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유지해야 할 자본수정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4. D. Drake & N. Dopuch, "On the Case for Dichotomizing Incom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Autumn 1965, pp.192-205; P. Prakash & S. Sunder, "The Case against Separation of Current Operating Profit and Holding Gain," Accounting Review, January 1979, pp.1-22.

5. Lee, T. A., Income and Value Measurement: Theory and Practice (London: Thomas Nelson and Sons, 1980), pp.85-88.

6. 利益說 주장자: Edwards & Bell, op. cit.; AAA, Committee on Concept and Standards - Long Lived Assets, "Accounting for Land, Building, and Equipment - Supplementary No. 1," The Accounting Review (July 1964), pp.693-699; AAA, Committee to Prepare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ASOBAT (AAA, 1966).

資本修正說 주장자:

F. E. P. Sandilands, Chairman, Inflation Accounting Committee, Inflation Accounting (London,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1975); R. A. Samuelson, "Should Replacement Cost Changes Be Included in Income?" The Accounting Review (April 1980), pp.254-265.

절충안: 재고자산 보유이익은 利益으로 유형고정자산 보유이익은 資本修正으로 처리한다는 설.

R. T. Sprouse and M. Moonitz, A Tentative Set of Board Accounting Principles for Business Enterprises, ARS No.3 (AICPA, 1962).

다. 이에 비해서 이익설의 근거는 재무자본유지개념에 있다. 재무자본유지개념에 따르면 이익이란 기초의 화폐투자액을 유지하면서 분배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따라서 이 이익개념 하에서는 자본수정설과는 달리 동일 혹은 유사자산에 재투자하는 것이 이익인식의 필요요건이 아니며 오히려 이익측정과는 무관한 별도의 재무의사결정으로 간주된다.

이익설은 다시 실현가능 원가절약설과 사체(surrogate)설로 나뉜다. 실현가능원가절약설은 E·B가 주장한 것으로 자산의 대체원가가 증가했을 경우 실체가 지금 그 자산을 취득한다면 과거에 취득했을 때보다 더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실체가 현재 더 나은 상태에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보유이익이 실현가능한 원가절감액이라는 것이다. 사체설은 보유이익을 자산의 순실현가치, 혹은 미래 사용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기대현금유입액의 현재할인가치의 사체로 보는 견해이다. E·B의 실현가능원가절약은 이익의 일종인 보유이익으로서, 그들은 '보유이익이 투입요소가 사용에 앞서 취득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생긴 원가절약을 나타내며, 이 원가절약은 보유활동에서 발생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Revsine은 E·B의 이익설에 대한 주장근거를 세가지로 요약하였다.⁷⁾

① 機會利得說

Revsine이 이익설 주장의 가능한 논리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기업은 소유자산의 가격증가로부터 효익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보유하지 않고 지금 그 자산을 구입한다면 더 많은 현금지출액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 좋게 일찍 구입함으로써 현금을 절약한 것은 실질적인 효익으로서 이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기회비용개념이다. 원가절약은 이익의 한 요소로서 기회이익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회사가 후일 가격이 더 높을 때가 아닌

그 보다 앞서 가격이 낮을 때 자산을 구입했기 때문이다."⁸⁾

Revsine은 이런 유형의 이익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실제발생사건과 발생가능했던 사건을 반드시 비교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볼 때, 실제사건과 비교가능한 수없이 많은 대안이 존재할 수 있고 그 대안으로부터 획득되는 이익 또한 불확실하기 때문에 실제사건과 비교할 수 있는 대안 중 한 가지, 즉 그 당시 구입하지 않고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현재시점에서 구입하는 것만을 선택하는 것은 옹호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② 資產價値의 增加說

보유이익이 자산가치의 증가를 나타낸다. 즉, 가치의 증가는 기업이 그 자산을 판매한다면 실현될 수 있는 실제 경제현상이다. 그러나 일부 회계담당자들은 기업이 자산가격의 상승과는 관계없이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부분의 자산을 구입하므로 자산의 청산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즉, 이 논리가 청산가치나 유출가격을 강조하므로 현행원가개념에는 부적합하다. 심지어 Revsine은 청산지향의 이익요소가 투자자의 정보욕구와는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투자자집단은 특히 수입배당금과 주식처분실수금 형태로 나타날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③ 미래현금흐름변동의 先行指標說

특정자산의 현행원가변동이 자산의 사용으로부터 산출되리라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을 반영한다는 점을 근거로 보유이익을 이익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보유이익의 근거가 되는 가격증가가 보다 큰 미래수익력을 반영하기 때문에 보유이익이 이익으로써 자격을 가진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보유이익을 포함하는 이익수치가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려는 정보이용자에게 매우 목적적합하다. 이 주장이 시사하는 바는 현행

7. L. Revsine, *Replacement Cost Account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3).

8. Ibid., p.88.

원가이익이 미래현금흐름의 선행지표(lead indicator)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의 이론적 근거는 현행원가이익과 경제이익 사이의 관련성이다.

보유이익을 이익의 구성요소로 간주하는 것은 재무자본유지개념이다. 소유주에 의한 추가출자와 소유주에 대한 배당을 제외하고 기초에 투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기말금액이 이익이므로 보유이익은 이익의 일부가 된다. 투자수익은 투자한 금액을 초과한 화폐금액합계이다. 보유이익의 이익 여부에 관한 문제는 결국 자본유지 개념에서 유지해야 할 자본이 무엇이나에 따라 결정될 문제인 것이다.

2.3 자본유지개념

자본유지(capital maintenance)개념이 중요성을 띠는 이유는 이익측정이 자본가치의 측정인 자산평가와 기초자본가치의 유지액 측정인 자본유지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측정되어야 할 자산과 부채의 속성, 즉 가치개념에 관한 합의는 특정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를 설계하는데는 충분하지만 손익계산서를 설계하는데는 불충분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유지개념에 대한 합의도 아울러 필요하다.

기말자본가치의 기초자본가치 초과액을 이익이라 할 경우 이익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영업이익과 보유이익으로 구성된다. 영업이익과 보유이익은 그 발생원천이 다르므로 이들 이익을 구분측정할 필요가 있다. 영업이익은 당기동안의 영업활동과정에서 산출된 것이므로 배당가능이익이 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보유이익의 성격은 자본유지개념에 따라 좌우된다. 실물자본유지개념에서는 자본수정으로 해석하는 반면, 재무자본유지개념에서는 이익으로 처리하고 있다.

자본유지개념은 크게 재무자본유지개념(financial capital maintenance concept), 실물자본유지개념(physical capital maintenance concept)의 두가지로 나뉜다.

2.3.1 재무자본유지개념

재무자본유지개념은 주주가 투자한 화폐금액과 내부유보된 이익잉여금을 유지할 자본으로 보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역사적원가회계모형 혹은 전통회계이익모형의 관점이다. 여기서는 단위화폐(예, ₩1)의 구매력변동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기업에 투자된 단위화폐의 수량(quantity)만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익이란 기초화폐자본에 기중추가출자 및 배당을 가감한 금액에 대한 기말화폐자본의 초과액이다. 재무자본유지설의 주장자들은 측정되어야 할 자산과 부채의 속성에 관해서는 의견을 달리할 수 있지만, 유지해야 할 자본을 직접적이든 아니면 과거이익의 내부유보를 통하든 간에 소유주가 투자한 화폐금액으로 측정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재무자본유지개념은 주주가 투자한 미수정 화폐금액을 강조하기 때문에 전통회계모형의 주요 목적인 수탁책임의 이행에 적합한 개념이다. 그리고 이 개념은 유지해야 할 자본을 주주가 투자한 미수정 화폐금액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화폐가치를 반영하는 구매력이 안정적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화폐가치가 기간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할 경우 기간별로 측정치가 동질적이지 못하므로 기간별 비교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영업이익과 실현보유이익의 혼합표시로 인해 경영효율의 평가가 곤란하며, 보유이익이 배당금 형태로 주주에게 분배될 경우 기업의 조업능력이 침식된다.

2.3.2 실물자본유지개념

이 개념은 실물자본을 유지해야 할 자본으로 본다. 실물자본은 조업능력(operating capacity) 혹은 생산능력(productive capacity)이라고도 부른다. 따라서 이익을 조업능력의 증가액으로 간주한다. 조업능력은 '기업이 전기와 동일한 수준의 재화와 용역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된다.⁹⁾ 이 개념 아래서 자본은 단순히 화폐단위나 화폐의 구매력으로

9. R. W. Scapens, *Accounting in an Inflationary Environment*(The Macmillan Press Ltd., 1981), p.68.

표시한 기업의富有 아니다. FASB는 토의메모에서 실물자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자본을 실물현상으로 볼 수 있다. 즉, 자본을 단순히 자산과 부채의 차이로만 볼 수는 없다. 자본은 사용중인 자산의 물리적 속성 혹은 자산을 결합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능력을 나타내기도 한다. 실물자본 주장자들은 세부적인 기술적 측면에서는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유지해야 할 자본이 기업의 실물생산능력이고, 회수되어야 할 원가가 사용중인 자산과 동일한 생산능력을 가진 자산의 현행 대체원가이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합의를 보고 있다.”¹⁰⁾

실물자본유지론자들은 회수되어야 할 금액이 현존자산과 동일한 생산능력을 가진 자산의 현행대체원가라고 한다. 따라서 이들 자산의 평가시 사용한 물가지수의 변동이나 개별가격변동에서 생긴 자본가치변동액은 가공의 이득으로서 추후의 자산 대체를 위해 비축되어야 하므로 이익구성요소로 간주할 수 없고 기초자본가치의 수정으로 보게 된다.¹¹⁾

이처럼 실물자본유지개념은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이 기존자산의 조업능력을 대체하는데 충분한 이익을 산출할 수 있는 능력에 좌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능력을 평가하는데 유용하다. 그리고 실물자본유지개념에서는 감가상각비와 매출원가를 현행대체원가에 입각하여 계산한 결과, 이익이 기업의 조업능력을 손상하지 않고 주주에게 분배가능한 금액을 반영한다. 따라서 이 개념에 따라 계산된 이익을 때로는 “분배가능한 이익(distributable income)” 혹은 “지속가능한 이익(sustainable income)”으로 부른다.¹²⁾

10.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Elements of Financial Statements and Their Measurement*, Discussion Memorandum (Stamford, Connecticut: FASB, 1976), p.127.

11. Backer, M., *Current Value Accounting* (Financial Executives Research Foundation, 1973), p.41.

그러나 실물자본유지개념은 경영의사결정과 회계기능을 혼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¹³⁾

이 개념은 영업활동의 지속능력을 보고하고자 하는데, 영업활동의 지속성을 달성하는 방법에 관한 의사결정은 바로 경영의사결정으로서 이것은 회계기능이 아니라 기업목표, 현재와 미래의 시장잠재력 혹은 제품, 원재료와 재무자원의 이용가능성, 그리고 기업의 적응능력 등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 실물자본유지개념은 조업능력의 의미에 따라서 달라진다.

조업능력의 의미는 세가지로 나뉜다.¹⁴⁾

① 실물자산 그 자체

이 개념은 자산의 내용년수 동안 소유하는 기존 자산의 현행구입가격 변화를 고려한다.

② 기초와 동일한 양의 재화나 용역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이 개념은 가장 최근의 설비자산의 현행구입가격의 변화를 고려한다.

③ 기초와 동일한 가치의 재화나 용역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이 개념은 가장 최근의 설비자산의 현행구입가격의 변화와 아울러 기술적으로 개량된 설비로써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단위당 현행판매가격의 감소도 고려한다. 이 중 ②와 ③은 기술진보가 발생가능하고 동일한 자산이 대체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Sterling은 이러한 실물자본개념이 몇가지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¹⁵⁾ 그는 실물자본유지설에 따른

12. Davidson, S. & R. L. Weil, "Inflation Accounting: The SEC Proposal for Replacement Cost Disclosures", *Financial Analysts Journal*, March/April 1976, pp.58,60.

13. G. O. Gamble, "Concepts of Capital Maintenance" in R. G. Schroeder & M. Clark, *Accounting Theory* 5th ed. (John Wiley & Sons, Inc., 1995), pp.150.

14. Inflation Accounting Committee, F. E. P. Sandilands, Chairman, *Inflation Accounting* (London: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1975), p.35.

이익은 다음 네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① 기업이 동일 자산을 계속적으로 대체한다. ② 자산의 현행원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③ 자산의 구매시장과 판매시장이 상이하다. ④ 기업자본이 전액 실물자산에 투자되어야 한다. 이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중대한 측정문제가 대두된다.

Ⅲ. 현행원가에 대한 支持

3.1 인식원칙

역사적원가 지지자들은 현행원가회계가 비화폐성 자산의 처분시점에서 이익을 인식하는 전통적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재무자본유지개념에 따라 나타나는 미실현보유이득에 대해 적용된다. 현행원가 지지자들은 미실현보유이득이 당기에 발생하는 실제경제현상을 나타내므로 이익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역사적원가 지지자들은 고정자산의 경우 기업이 판매가 아닌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고정자산의 시장가격변동이 목적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원가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판매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목적적합한 것은 자산의 가격이 변동했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3.2 현행원가의 객관성

역사적원가 지지자들은 현행원가회계의 주요 약점 중의 하나가 객관성의 결여라고 주장한다. 이 결론은 사용되는 현행원가가 기업에 당사자로 참여하는 실제거래를 바탕으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 내려진다. 그러나 객관성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오늘날 전통회계에서조차도 일부 수치는 다른 수치보다 더욱 객관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

라서 문제는 현행원가가 일반적으로 회계전문가가 수용하려는 최소한의 객관성을 충족시키는데 달려있다.

따라서 시장가격이 비교적 용이하게 입수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현행원가의 객관성이 회계담당자에게 수용될 수 있다. 외부에서 구입되는 원재료와 제품이 이 범주에 속한다. 실제로 이들 재고자산의 실제원가는 LIFO 등과 같은 원가흐름가정을 근거로 결정되는 역사적원가보다 그 분산도가 낮다는 의미에서 좀더 객관적이다. 대부분의 대규모기업의 경우 재화의 실제적인 역사적원가흐름을 계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비해 현행원가는 기말재고를 대차대조표일 현재 널리 보급되어 있는 원가로 평가되며, 매출원가가 제품이 판매되는 시점의 현행원가로 표시되어야 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재화가 기업내에서 제조된다면 재공품과 제품의 현행원가는 측정하기가 보다 힘들다. 제조과정의 개별구성요소와 그 현행원가가 식별되어야 한다.

고정자산의 현행원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차량운반구와 기타 사무용비품과 같은 표준자산의 경우 현행원가를 중고매매업자로부터 어렵지 않게 입수할 수 있다. 다른 유형의 고정자산일지라도 현행원가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입수하기가 보다 쉽다. Revsine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많은 유형의 설비자산에 대하여 중고자산의 거래시장이 상상외로 잘 발달되어 있다. 수많은 매매업자와 잘 발달된 정보시장이 광범위한 일반목적의 제조부품 및 수요가 충분히 많은 매우 많은 전문품목에 대하여 존재한다. 따라서 설비매매업자의 가격 목록 및 유사원천을 참고함으로써 현재 사용중인 舊자산에 대한 시장가격을 빈번하게 입수할 수 있을 것이다.”¹⁵⁾

15. R. Sterling & K. Lemke(eds), *Maintenance of Capital: Financial vs. Physical*(Kansas: Scholars Book Company, 1982), chapter 1.

16. L. Revsine, "Technological Changes and Replacement Costs: A Beginning", *Accounting Review*, January 1979.

IV. 현행원가에 대한 批判

4.1 역사적원가 지지자의 비판

역사적원가 지지자는 주로 현행원가회계가 수익 인식에 관한 전통적 견해와 상치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거부한다. 특히 고정자산의 경우 판매되기 전에 자산원가의 증가를 기록하는 것이 역사적원가 지지자를 괴롭힌다. 자산을 판매할 목적이 아니고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시장가격의 변화는 목적적합한 정보가 되지 않는다. 고정자산은 현행원가가 증가했다는 것만으로는 기업에 대해 더 큰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정자산의 가치는 그것의 용역잠재력에 있지 그것의 시장가치에 존재하지는 않는다.

현행원가증가액 측정의 주관성이 문제시될 수 있다. 고정자산의 현행원가를 식별하는데는 많은 주관성이 개입된다. 만약 신뢰가능한 중고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업이 사용하는 실제자산의 현행원가 측정을 위해서는 舊자산을 대체하리라 기대되는 新자산이 사용될 것이다. 현행원가개념은 실제소유자산의 현행원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실제자산과 대체자산 사이의 영업상의 이점과 불리점을 감안하여 일정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영업상의 이점과 불리점을 금액으로 표시하여

4.2 유출가격 지지자의 비판

유출가격회계의 지지자들은 현행원가회계의 약점을 여러가지로 지적한다.

첫째, 그들은 원가의 개념이 기회비용, 즉 차선의 대안의 희생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회사가 겪는 현재의 희생은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것이기보다는 판매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그 자산을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는 것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현행원가, 즉 그 자산의 구입가격은 적합한 금액이 될 수 없다. 기회비용의

논리적 표현은 유출가격 혹은 실현가능가치이다.

Lemke는 기술적으로 진보된 자산이 기존자산의 대체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존생산방식에 따라 계산된 현행영업이익이 미래이익의 예측치로는 빈약할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⁷⁾ 기술이 발전하고 있을 때 투자자들은 미래현금흐름의 예측을 위한 기준으로 현행영업이익을 사용할 경우 오도될 수 있다. 많은 경우에 재무제표는 구식화되었고 회사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자산의 현행구입가격과 감가상각비를 반영할 것이다. 이익은 계속되리라 기대되지 않는 기존설비의 수익력을 나타낼 뿐이다.

유출가격 지지자는 현행원가회계(상실가치회계)가 가법성이라는 수학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한다. Chambers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자산의 금액은 부채의 금액과 동일한 종류이어야 한다. 그것들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화폐금액 혹은 비화폐성자산의 화폐등가액이어야 한다. 비화폐성자산의 화폐등가액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이들 자산의 순현금액이다.”¹⁸⁾

그는 자산가치합계액이 부채를 상환하고, 임금, 배당 및 조세를 지급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가치는 단순히 가상적인 수치일 뿐이며, 순실현가치도 실현가능한 금액에서 판매될 때 발생가능한 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역시 가상적인 수치이다. 현행원가는 기업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재구입가격을 표시한다. 합계액이 가법적이 되려면 수치의 성격이 동일해야 한다.

V. 結 論

현행원가회계의 핵심개념인 경영이익개념은 현행영업이익과 실현가능원가절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17. K. Lemke, "The Achilles Heel of Sandilands," *Chartered Accountant Magazine*, September 1976.

18. R. J. Chambers, "Accounting for Inflation - Part or Whole", *Accountant's Magazine*, March 1976.

현행원가영업이익은 판매된 제품의 현행가치에서 관련원가요소의 현행원가를 차감한 잔액이며, 실현가능원가절약은 기업보유자산의 당기현행원가증가액으로서 보유이득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이 보유이득은 실현보유이득과 미실현보유이득으로 구분된다.

보유이득의 성격에 대해서는 자본수정설과 이익설의 두가지 견해가 있다. 현행원가변동액을 보유이득으로 간주하여 이익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익설과 이익의 일부로 될 수 없는 자본수정으로 간주하는 자본수정설로 나누어져 있다. 자본수정설의 근거는 조업능력유지개념인 반면, 이익설의 근거는 재무자본유지개념이다.

현행원가회계 주장자는 그것이 전통회계보다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재무자본개념을 신봉하는 학자집단과 실물자본개념을 신봉하는 학자집단으로 나누어져 있다. 재무자본 지지자는 현행원가정보가 경영자들의 과거의사결정의 평가에 필요하고, 따라서 그들의 의사결정능력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다. 투자자와 기타 정보이용자는 기업과 경영자의 성과를 평가하고 또한 그 성과를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할 정보를 필요로 한다. 실물자본 지지자들은 기업을 지속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기업의 조업능력이 유지되었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역사적원가 지지자는 현행원가회계가 자산을 판매하기 전에 자산가치 증가를 인식함으로써 전통적인 수익인식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회계과정에 지나치게 주관성이 개입되어 있다고 믿는다.

유출가격 지지자는 진실한 현행가치접근법에서는 현행원가보다는 유출가격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기회비용이 차선의 대안의 희생이며, 기업의 경우 자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은 구입이 아닌 자산의 판매이기 때문이다.

References

- [1]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Committee on Concept and Standards-Long Lived Assets," Accounting for Land, Building, and Equipment-Supplementary No. 1," The Accounting Review, July 1964, pp.693-699.
- [2] ———, Committee to Prepare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ASOBAT (AAA, 1966).
- [3] Backer, M., Current Value Accounting (Financial Executives Research Foundation, 1973).
- [4] Chambers, R., Accounting, Evaluation and Economic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6); Robert Sterling, Theory of Measurement of Enterprise Income (Kansas: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70).
- [5] ———, "Accounting for Inflation - Part or Whole", Accountant's Magazine, March 1976.
- [6] Davidson, S. & R. L. Weil, "Inflation Accounting: The SEC Proposal for Replacement Cost Disclosures", Financial Analysts Journal, March/April 1976, pp.58,60.
- [7] Drake, D. & N. Dopuch, "On the Case for Dichotomizing Incom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Autumn 1965, pp.192-205.
- [8] Edwards, E. O. & P. W. Bell, The Theory and Measurement of Business Incom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1).
- [9]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Elements of Financial Statements and Their Measurement, Discussion Memorandum (Stamford, Connecticut: FASB, 1976).
- [10] ———, Financial Reporting and Changing Prices, Statement No.33 (Stamford, Conn.: FASB, September 1979).
- [11] Gamble, G. O., "Concepts of Capital Maintenance" in R. G. Schroeder & M. Clark, Accounting Theory 5th ed. (John Wiley & Sons, Inc., 1995).
- [12] Inflation Accounting Committee, F. E. P. Sandilands, Chairman, Inflation Accounting

- (London,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1975).
- [13] Lee, T. A., Income and Value Measurement: Theory and Practice (London: Thomas Nelson and Sons, 1980).
- [14] Lemke, K., "The Achilles Heel of Sandilands," Chartered Accountant Magazine, September 1976.
- [15] Prakash, P. & S. Sunder, "The Case against Separation of Current Operating Profit and Holding Gain," Accounting Review, January 1979., pp.1-22.
- [16] Revsine, L., Replacement Cost Account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3).
- [17] Samuelson, R. A. "Should Replacement Cost Changes Be Included in Income?" The Accounting Review, April 1980, pp.254-265.
- [18] Scapens, R. W., Accounting in an Inflationary Environment (The Macmillan Press Ltd., 1981).
- [19] Sprouse, R. T. and M. Moonitz, A Tentative Set of Board Accounting Principles for Business Enterprises, ARS No.3 (AICPA, 1962).

● 저자소개



이 정 록

- 1980년 부산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사)
1982년 부산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석사)
1990년 계명대학교 회계학과(경영학박사)
1991년 ~ 현재 양산대학 사무자동화과 조교수